

나주시, 전남체전 선수단 틈새 유치... 지역경제 보탬

5개 시군 1000여명 지역 숙소 사용 경기장 30분 거리 편의시설 뒷받침 바가지 근절 친절서비스 지속 교육 "대회 연계 상권 활성화 노력할 것"

전라남도 나주시가 장성군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한 5개 시군 선수단 1000여명의 숙소를 나주로 유치하는 틈새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에서 전남체전이 개최됐으나 장성군 내 숙박업소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발 빠르게 여타 시군체육회 선수단의 숙소를 지역으로 유치하는 틈새 전략을 펼쳤다.

나주시는 체전 개최지인 장성군과 자동차전용도로가 직통으로 개설돼 있어 경기장까지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호텔,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 서남권 내륙의 숙박지로 각광받고 있다.

김재억 나주시체육회장은 "나주시의 숙박업소를 선수단 숙소로 사용해 주신 5개 시군 체육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체육회가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지속적으로 도내 시군 체육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나주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현재 나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여 개 전국 및 광역 대회와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다"

며 "이번 전남체전 5개 시군 선수단 유치에 이어 금주에 펼쳐지는 '2025년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3개 종목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등 스포츠 대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숙박업소 및 식당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바가지 근절, 친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500만 나주관광 수용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제1회 북쪽하늘아래 산나물축제' 장성군, 26일부터 단전리 일원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이 산나물 산지로 유명했던 지역의 역사성과 개성을 살린 마을축제를 선보인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제1회 북쪽하늘아래 산나물축제'가 오는 26~27일 이틀간 장성호관광지와 북하면 단전리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의 주무대는 장성호관광지(북하면 쌍송리 273)다. 첫날에는 장성국악협회의 풍물놀이와 초대가수 공연, 아코디언·통기타·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건강댄스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1970년대 장성호 조성과 함께 수몰된 북상면 향우들을 위한 '제12회 옛 북상면 민 만남의 날' 등 뜻깊은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튿날인 27일에도 초대가수의 무대와 레크리에이션, 각설이 공연, 노래자랑 등 흥겨운 순서들이 이어진다.

점심시간을 앞두고선 북하면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741분 비빔밥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741'은 북하면 백암산의 최정상인 상왕봉 높이(741m)에서 착안했다.

산나물 체험행사는 26일 하루 동안 북하면 단전리(527번지)에서 열린다.

먼저 장성호관광지 주무대에서 체험을 신청한 뒤 3000원, 5000원 두 종류로 마련된 봉투를 구입해 체험지로 이동하면 된다.

박종렬 북하면 축제추진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조성한 산나물 재배 장소에서 직접 나물을 채취해 가져가는 행사"라며 "정정 자연을 벗 삼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민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산나물축제가 북하면 관광 활성화와 산나물 산지의 명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금성산 일대 산악사고 예방 총력 나주소방, 등산로 안전 강화 등

전라남도 나주소방서가 금성산 한수제 일대를 중심으로 산악사고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산악안전지킴이 운영과 119구조대의 실전형 특별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3일 나주소방서는 2025년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금성산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성산 한수제 등산로에 '산악안전지킴이'를 배치해 현장 안전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낙석 및 미끄럼 위험 구간에는 경고 플래카드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후된 산악 위치표지판을 정비하고 국가지점번호를 병행 표기해 긴급 구조 요청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산악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형 특별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대응 숙련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반복 숙달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조진용 기자

나주=김용의 기자

축제 대비 시가지 환경정화 함평군 함평읍 주민자치회

전라남도 함평군이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민관 합동 지역 환경 정비에 나섰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주민자치회원 30여명과 읍사무소 전 직원 등 40여명이 함께 지난 22일 함평읍 시가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맞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읍 시가지 전역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 미화를 실천하는 등 정비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모집 등 읍정 홍보와 함평나비대축제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경진 주민자치회장은 "함평읍 주민자치회가 앞장서 주민 모두가 깨끗한 함평 만들기에 동참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깨끗한 함평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제64회 전남체전 2연패 함평군 골프 선수단

전라남도 함평군이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골프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23일 함평군은 골프 선수단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 푸른솔 GC에서 열린 전남도민체전 골프 종목에서 단체전 1위와 개인전 입상을 달성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골프 선수단은 최종 2라운드 합계 447타로 단체전 1위를 기록했으며 남자 개인전에서는 정경호 선수가 2라운드 합계 148타로 1위, 강권오 선수가 149타로 3위를 차지했다. 여자 개인전에서 서효주 선수가 153타로 3위에 입상하며 지난해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박종희 함평군체육회장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함평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선수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기량을 뽐내서 함평군을 널리 알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제27회 나비대축제를 앞두고 함평군 함평읍 주민자치회 직원들이 지난 22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군 제공

곡성군, 장미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방안 마련

21개 업체 참여 확정

전라남도 곡성군은 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열린 운영회의에는 지역 농가 및 단체 관계자 14명과 행정 담당자 5명 등 총 19명이 참석해 판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참여 농가 및 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식품위생법 관련 허가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판매장 운영을 위한 협조사항과 안전한 식품 판매를 위한 위생 관리방안이 강조됐으며 각 농가·단체별 판매대 배치 위치를 추점해 통해 공정하게 결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위치 조정까지 마무리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향후 추진될 농·특산물 판매장은 오는 5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총 21개 농가와 단체가 참여해 약 96개 품목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역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판로 확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직거래로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군은 행사 기간 테이블, 의자 등 판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농가들의 편의를 돕고 2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외부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홍보물을 증정하는 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직거래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농가들은 식품 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해 신뢰를 쌓고 방문객들은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광주축협 조합장 재선거 김재필 조합장 '당선'

"맞춤 지도사업 펼칠 것"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축협연합회 조합장 재선거에서 기호2번 김재필(사진)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23일 광주축협에 따르면 선거는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전체 조합원 519명 중 469명이 투표했으며 무효표 1표를 제외한 468표 중 291표를 획득한 김재필후보가 당선됐다.

김 조합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조합원님의 소중한 선택과 성원에 힘입어 제22대 광주축협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며 "조합원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언제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투표율이 약 91%에 달하며 높은 주인의식을 보여줬다는게 광주축협의 설명이다.

김 조합장은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물산업학과를 졸업(농학박사)했으며 경력으로는 광주축협 상임이사, 전남대



학교 농과대학 겸임교수로 활동 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20일까지이며 향후 2년간 광주축협농협의 재정 운영, 조합원 복지, 스마트축산 트렌드화, 축산물 유통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등 주요 경영현안을 지휘하는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김재필 조합장은 "개혁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지속성장하는 미래형 광주축협농'이라는 슬로건으로 조합발전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을 적극 양성 발굴하겠다"며 "축산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지도사업으로 조합원님을 위한 복지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